

開 幕 演 說

(要 約)

李 光 麟

(大 會 議 長)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아세아에서의 공산주의 수용”이라는 제목아래 작년에 이어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와 韓國國際文化協會 공동주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는 4년반이라는 짧은 역사와 적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의 밑에는 前所長 全海宗教授, 現所長 李相禹教授와 5~6명의 運營委員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적 공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의부학자와 연구기관의 도움이 컸었기에 그같은 성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東亞研究所에서 매달 열리는 月例發表會도 제 1 발표자로 金俊燁教授께서 수고하신 이래 의부학자들이 많은 발표를 하여 왔고, 또 본 연구소가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도 계속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울러 연구소를 위해 재정적 도움을 준 국토통일원, 문교부, 한국국제문화협회, 美國의 국제기독교 학술재단(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 Education) 등의 단체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세아의 근대사는 서양세력의 도전에 대한 아세아인의 대응과 투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사상적으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공산주의와 기독교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사상은 한, 중, 일의 전통체제를 흔들어 놓은 중요한 사상줄기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하나

의 중요한 서양사상인 자유민주주의를 다루고, 언젠가는 기독교사상의 수용문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하나씩 진행되면 동양에 미친 서양 중요사상의 흐름이 대체로 고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도 중요문제가 전부 거론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커다란 줄기는 거의 망라될 수 있을 것이며, 그같은 토론과 발표가 하나의 지적 기초로 확립되어 후일의 학문발전에 대한 초석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많은 토론과 발표를 통해 충분한 지적 교환이 이루어지고 학문적 결실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외국에서 참석하신 학자분들과 국내 학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사흘간의 발표가 뜻깊고 성과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